

Issue Monitor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과 전망

삼성KPMG 경제연구원
June 2015



The contacts at Samjong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법석
경제연구원
원장
Tel: + 82 2 2112 0770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경제연구원
상무이사
Tel: + 82 2 2112 0062
kwangryeolyi@kr.kpmg.com

조진희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Tel: + 82 2 2112 7454
jinheecho@kr.kpmg.com

이희진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el: + 82 2 2112 7438
hlee3@kr.kpmg.com

김주형
경제연구원
연구원
Tel: + 82 2 2112 7769
jkim81@kr.kpmg.com

	Page
[Executive Summary]	2
[2014년 M&A 현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가별 M&A : 미국, 글로벌 ICT 산업 M&A 견인 • 크로스보더 M&A : 2013년 대비 29.7% 증가 • ICT 산업별 M&A : 인터넷 산업, ICT 산업 M&A 리딩 	
[2014년 M&A 특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산업으로의 M&A 확대 • ICT 서비스 분야 M&A 활발 • 사모펀드의 ICT 산업 투자 확대 	
[시사점과 전망]	15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주)과 관계회사(이하"삼성")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시장,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삼정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정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정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정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2014년 글로벌 ICT 산업의 M&A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건수를 기록하며 매우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 거래 규모 역시 상반기에 레노버, 페이스북, 구글 등 메이저 기업들의 Mega Deal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ICT 전체 산업에서 M&A가 확대된 가운데, ICT 기업들은 금융, 헬스케어 등 타산업으로의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 2014년 M&A 현황

- 전년대비 18.0% 증가한 5,418건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건수, 최대 규모 기록
- 주요 국가별 M&A
 -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영국이 전체 중 66.4% 차지하며 글로벌 M&A 주도
- 크로스보더 M&A
 - 2013년 대비 29.7% 증가하며 확대되는 추세
- ICT 산업별 M&A
 - 인터넷>미디어>소프트웨어 산업 순으로 M&A 활발

■ 2014년 M&A 특징

- 타산업으로의 M&A 확대
 - IT와 타산업간의 융합 현상이 심화되면서 타산업으로의 M&A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1,402건 기록했으며, 특히 금융 및 유통, 헬스케어 분야와의 결합이 두드러짐
- ICT 서비스 분야 M&A 활발
 - 인터넷, 미디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ICT 서비스 분야가 전년대비 20.2% 증가한 가운데, 전체 중 73.1%의 비중을 보이며 ICT 산업의 M&A 주도
 - 특히 중국의 제조 부문은 2013년 대비 4.5%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문은 전년대비 36.8% 증가하는 등 ICT 서비스 분야 급성장 추세
- 사모펀드의 ICT 산업 투자 확대
 -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등과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의 ICT 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근 10년간 최대건수 기록
 - 특히 구글 벤처스, 인텔 벤처스, 삼성 벤처스와 같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IC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IT 분야를 비롯한 금융, 헬스케어, 유통 등 타산업과의 융합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임

■ 시사점과 전망

- 글로벌 ICT 기업들은 M&A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ICT 산업의 M&A는 감소하고 있음. 국내 ICT 기업들 또한 M&A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보다 전략적 방안으로 M&A를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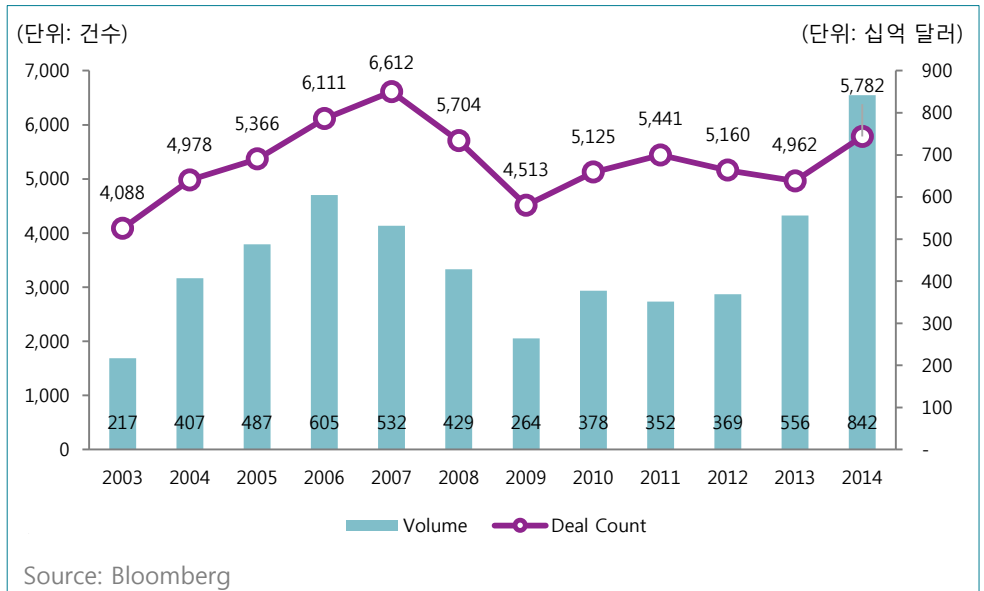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과 전망

2014년 M&A 현황

2014년 글로벌 ICT 산업의 M&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건수와 규모를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ICT 산업의 M&A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5,782건,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51.4% 증가한 8,42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블룸버그의 집계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오류를 제거한 후 재분석과정을 통해 ICT 산업별, 국가별 M&A 현황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4년 글로벌 ICT 산업 M&A는 총 5,418건으로 전년(4,592건)보다 18.0% 증가했다. M&A 규모로 보면, 50억 달러 이상의 Mega Deal은 0.9%에 그친 반면 5억 달러 미만의 M&A는 전체의 93.4%에 달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이 핵심기술과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소규모 딜도 마다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또한 ICT 산업 내에서의 적극적인 M&A 뿐만 아니라 금융 및 헬스케어 등 타산업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등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한 결과다.

<글로벌 ICT 산업 M&A 추이>



“
금융위기 이후
최대 건수, 최대 규모

본 보고서는 글로벌 ICT 산업의 M&A 동향 분석을 통해 2015년 글로벌 ICT 기업들의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인수 주체는 ICT 산업에 속한 기업이며, 피인수 대상은 전체 산업의 기업을 모두 포함했다. ICT 산업 분류는 블룸버그에서 정한 산업 분류를 Internet, Media, Software, Telecommunications, Computers, Electronics, 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 Semiconductors 등 총 8개의 산업으로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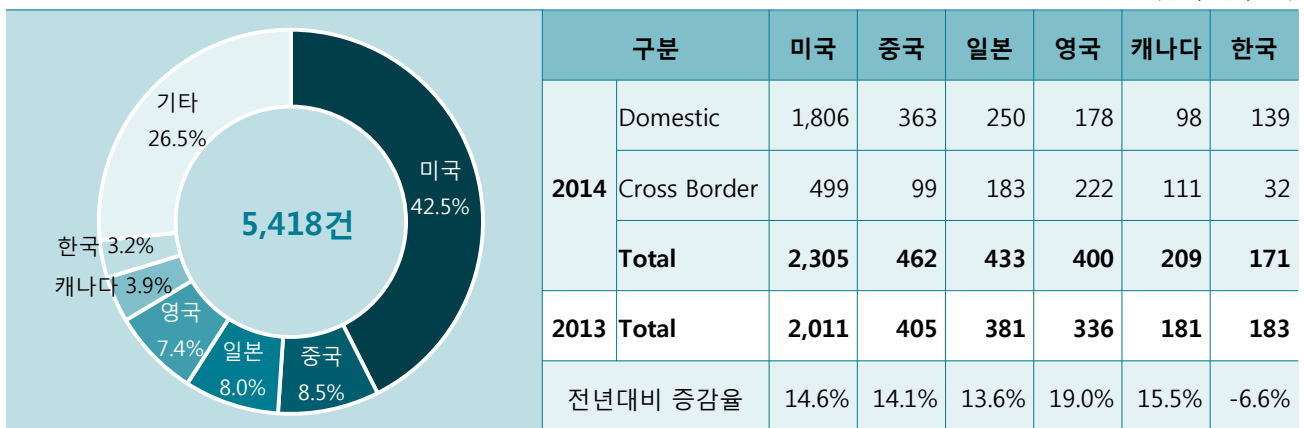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과 전망

주요 국가별 M&A : 미국, 글로벌 ICT 산업 M&A 견인

국가별로 M&A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이 글로벌 ICT 산업 전체 M&A 중 66.4%를 차지하며 글로벌 M&A를 주도했다. 미국은 전체 5,418건 중 42.5%인 2,305건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이 8.5%, 영국이 7.5%를 차지했다. 주요국들은 전년대비 13.6~19.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는 전년대비 6.6%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2014년 글로벌 ICT 산업의 주요 국가별 M&A 비중>

(단위: 건수, %)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ICT 산업 M&A의 70.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의 ICT 산업별 M&A의 경우 인터넷 산업이 총 3,809건 중 23.8%인 9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산업이 각각 766건, 765건을 기록해 각각 20.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 ICT 산업 M&A는 64.0%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에서 이루어짐

미국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M&A가 각각 500건 이상 이루어질 정도로 미국 내 ICT 산업의 M&A를 주도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터넷/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된 기업들을 다수 인수하며 트렌드를 선도했다.

중국 또한 인터넷 분야가 21.9%로 ICT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 급성장중인 중국 3대 IT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는 모바일 서비스, 전자상거래, 미디어, 콘텐츠 등의 웹 기반 서비스 시장 선점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했다.

영국의 경우, 공격적인 M&A로 잘 알려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WPP가 소규모 PR, 광고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M&A를 추진하며 영국 미디어 부문의 M&A를 이끌었다.

<2014년 주요국의 ICT 세부 산업별 M&A 현황>

(단위: 건수)

ICT 산업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Total	비중
Internet	593	101	116	61	37	908	23.8%
Software	527	64	40	67	68	766	20.1%
Media	461	38	72	158	36	765	20.1%
Telecommunications	184	46	64	44	31	369	9.7%
Computers	250	45	33	28	11	367	9.6%
Electronics	129	88	59	27	10	313	8.2%
Electrical Compo & Equip	67	66	30	9	7	179	4.7%
Semiconductors	94	14	19	6	9	142	3.7%
주요 5개국 Total	2,305	462	433	400	209	3,809	100%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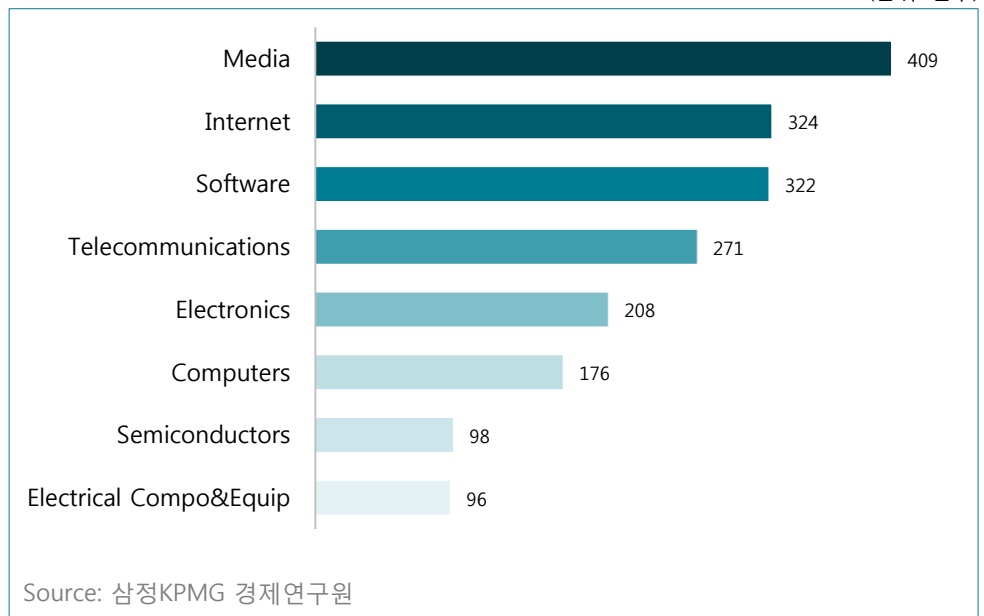
**크로스보더 M&A,
미디어 산업 가장 활발**

크로스보더 M&A : 2013년 대비 29.7% 증가

2014년 크로스보더 M&A는 전체 5,418건 중 35.1%인 1,90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9.7% 증가한 수치로 매년 크로스보더 M&A가 확대되는 추세다. ICT 세부 산업별로는 미디어 409건, 인터넷 324건, 소프트웨어 322건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 크로스보더 M&A 중 절반 이상인 55.4%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ICT 산업의 크로스보더 세부 산업별 M&A 현황>

(단위: 건수)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ICT 산업별 M&A : 인터넷 산업, ICT 산업 M&A 리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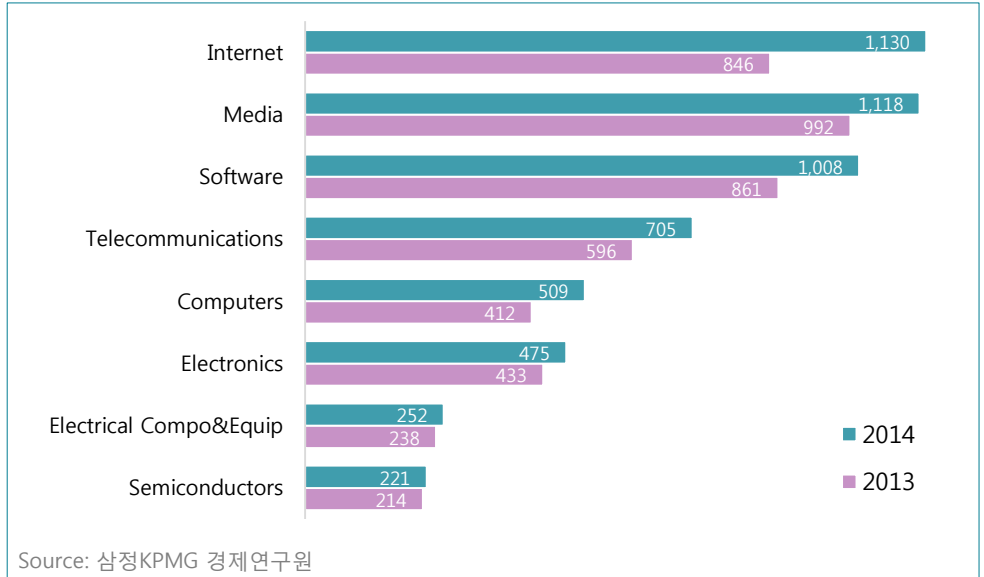
2014년 전체 ICT 산업 중 인터넷 분야가 1,130건으로 가장 활발한 M&A를 진행했다. 그 뒤를 이어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높은 M&A 건수를 기록한 반면, 전자 부품 및 반도체 분야는 저조한 M&A를 나타냈다.



인터넷>미디어>
소프트웨어 산업 순으로
M&A 활발

< ICT 세부 산업별 M&A 거래건수 비교: 2013 vs. 2014 >

(단위: 건수)



인터넷 산업은 전년대비 33.6% 증가하며 타산업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특히 구글, 텐센트, 야후, 알리바바 등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다수의 M&A를 추진했다. 특히 구글은 2014년에만 33개의 기업을 인수해 인터넷 산업 중 가장 많은 M&A를 진행했다. 진출 영역도 사물인터넷, 인터넷 플랫폼, 콘텐츠, 위성, 무인차 등 주력분야인 인터넷,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바이오, 항공, 통신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미디어 산업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총 1,118건의 M&A를 기록했다. WPP, Publicis Groupe, Dentsu 등과 같은 글로벌 광고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들은 2014년에만 각각 57건, 22건, 18건의 활발한 M&A를 진행시켜 M&A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1,008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게임, 음악 등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서비스 확대에 관련 소프트웨어 M&A도 증가했다. 특히 전세계 소프트웨어 분야 M&A 중 52.3%를 차지한 미국이 가장 활발한 모습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M&A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12건)는 모바일 앱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해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개발업체인 모장(Mojang)과 기어스 오브 워워(Gears of War franchise)를 인수하며 게임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과 전망

2014년 M&A 특징

2014년 글로벌 ICT 산업의 M&A를 분석한 결과, 세가지 특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특징은 ICT 기업들의 M&A대상으로 ICT 산업이 아닌 타산업의 기업들이 증가했다. 두번째 특징으로 인터넷, 미디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ICT 서비스 분야에서 M&A가 활발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모펀드의 ICT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 글로벌 ICT산업 M&A 특징>

1. 타산업으로의 M&A 확대
2. ICT 서비스 분야 M&A 활발
3. 사모펀드의 ICT 산업 투자 확대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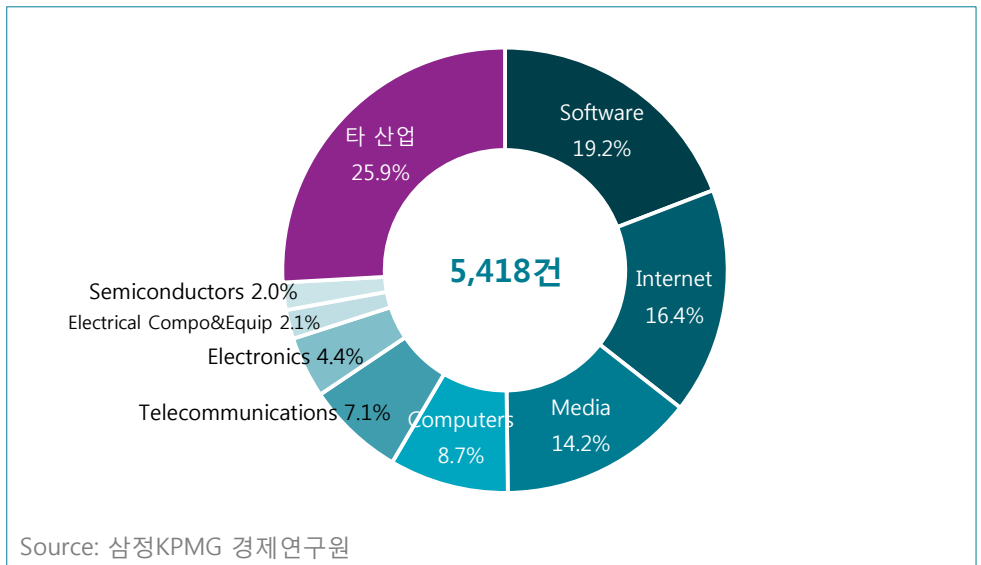


ICT 기업들,
4건 중 1건은
타산업에 투자

타산업으로의 M&A 확대

ICT 기업들이 ICT 산업이 아닌 타산업으로의 M&A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1,402건으로 전체 M&A 중 25.9%를 차지했다. ICT 기업들의 M&A 중 4건 중 1건은 ICT 산업이 아닐 정도로 ICT 산업은 타산업과의 융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ICT 기업의 피인수 대상 산업별 비중>



글로벌 ICT 기업들은 타산업 중 M&A 건수 기준으로 필수소비재인 경기비순환소비재 부문으로의 M&A가 가장 많은 559건을 기록했고, M&A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금융 부문이 전년대비 55%나 증가했다.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과 전망

<ICT 기업의 타산업과의 M&A 거래현황>

(단위: 건수, %)

Industry	2013	2014	YoY(%)
Financial	160	248	55.0%
*Consumer, Cyclical	200	236	18.0%
*Consumer, Non-cyclical	484	559	15.5%
Industrial	197	205	4.1%
Diversified	46	46	0.0%
Energy	76	67	-11.8%
Utilities	17	14	-17.6%
Basic Materials	50	27	-46.0%
Total	1,230	1,402	14.0%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Consumer, Cyclical(순환소비재) - 자동차, 여행 등 경기에 따라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재

Consumer, Non-cyclical(비순환소비재) - 비누, 생수 등의 생필품으로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소비재



ICT 기업들, 금융과 유통,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

금융 부문으로의 M&A는 ICT 기업들이 타산업으로의 M&A 건수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금융 부문 중 생명 및 건강 보험 관련 M&A는 전년대비 38.4% 증가했고, 인터넷 투자, 투자관리 관련 금융 기업에 대한 M&A는 총 65건으로 전년대비 51.2% 늘어났다. 특히 신용카드 및 투자은행,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 서비스 기업은 총 64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113.3%로 크게 상승했다. ICT 기업들이 금융 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간(2014년 6월)한 “중국 전자결제 의 이노베이터, 알리페이”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텐홍자산운용과 협력하여 소비자가 쇼핑 후 남은 충전금액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머니마켓펀드 상품인 위어바오를 출시하여 9개월 만에 5,000억 위안(약 83조 원)의 투자금과 8,100만 명의 투자자를 모아 금융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순환소비재 부문은 236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8.0% 증가했다. 이 중에서 유통업으로의 M&A가 81건으로 전체 중 1/3을 차지했으며, 특히 유통에서도 가전 분야와의 M&A가 활발했다. 이외에 의류, 서점, 가구 등의 부문으로 사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애플은 웨어러블 기기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업체인 LuxVue Technology를 인수했는데, ICT 기업들의 관심사가 스마트홈과 웨어러블 등 사물인터넷 관련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비순환소비재 중 상업 서비스 부문이 439건을 기록하며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다음으로, 헬스케어 제품(32건), 헬스케어 서비스(29건), 제약(14건), 생물공학(13건) 등 헬스케어 관련 M&A가 다수 진행됐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함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헬스케어 산업을 연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의료공학 등의 부문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 모니터링 서비스 전문업체 Lynx Design 인수한 바 있다.

ICT 서비스 분야 M&A 활발

ICT 산업을 인터넷, 미디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제조기반이 아닌 서비스 기반의 상품을 영위하는 산업과 컴퓨터, 전자, 전자부품·장비, 반도체 등 제조 부문으로 구분해보면, 2014년 서비스 부문의 M&A가 전체 M&A 5,418건 중 73.1%인 3,961건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해 제조 부문보다 건수는 2.7배, 증가율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ICT 산업에서 서비스 분야의 역동성을 글로벌 M&A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글로벌 ICT 서비스와 제조 부문의 M&A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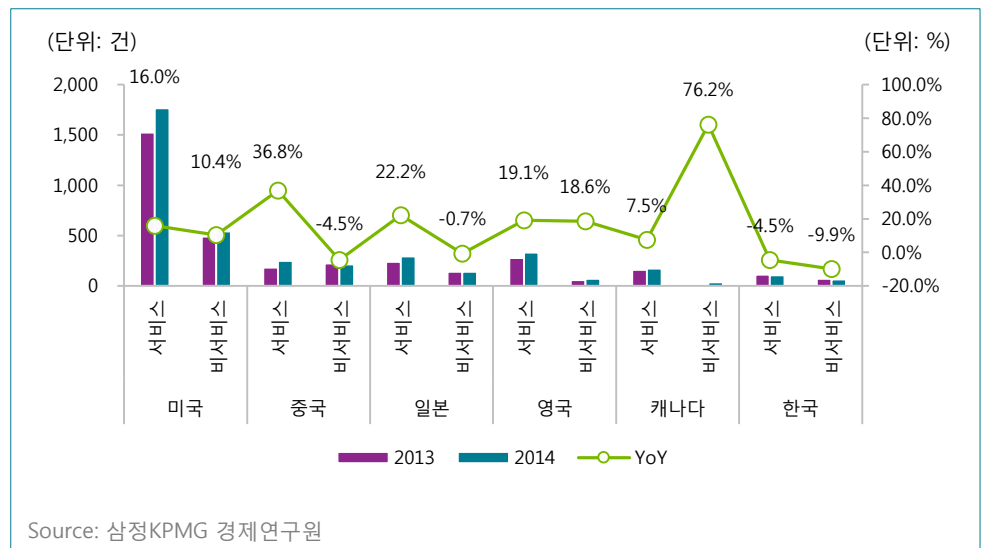
산업 구분		2013	2014	YoY
서비스	Internet	846	1,130	33.6%
	Media	992	1,118	12.7%
	Software	861	1,008	17.1%
	Telecommunications	596	705	18.3%
	서비스 Total	3,295	3,961	20.2%
비서비스	Computers	412	509	23.5%
	Electronics	433	475	9.7%
	Electrical Compo&Equip	238	252	5.9%
	Semiconductors	214	221	3.3%
	비서비스 Total	1,297	1,457	12.3%
Total		4,592	5,418	18.0%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ICT 서비스 분야 M&A는 전체 거래 중 73.1%로 압도적

서비스 부문의 역동성은 국가별 M&A 거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M&A 건수가 적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중국이 전년대비 36.8%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일본(22.2%), 영국(19.1%), 미국(16%) 순으로 서비스 부문에서의 M&A가 증가했다. ICT 기업들의 피인수 대상 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중 56.9%가 서비스 부문이고 제조 부문은 17.2%에 그쳤다.

<국가별 ICT 서비스와 제조 부문의 M&A 증감 비교(2013 vs. 2014)>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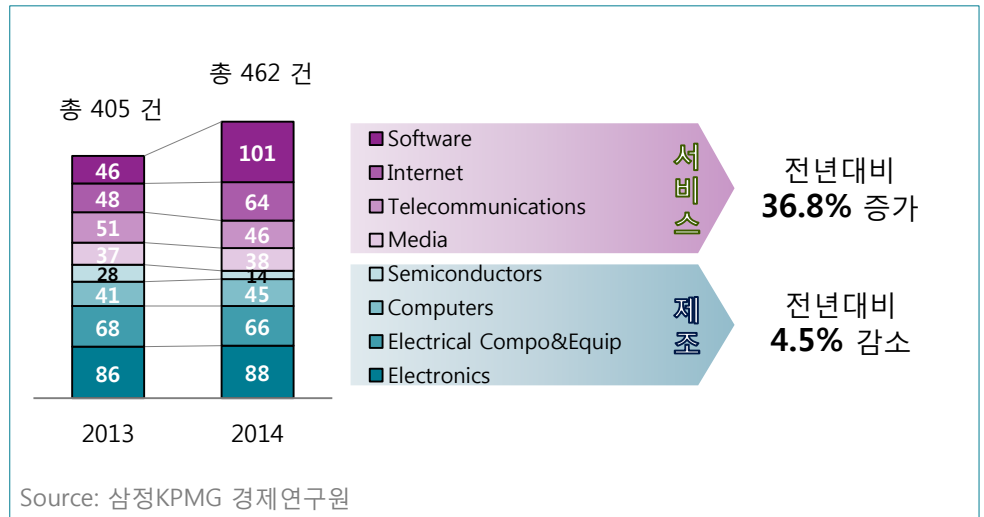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과 전망

특히 중국은 제조 부문이 전년대비 4.5%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문은 크게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년대비 119.6% 증가한 101건을 기록하며 급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M&A 활발

<2013~2014년 중국의 ICT 산업별 M&A 거래 현황>



중국 ICT산업의 M&A 증가는 중국의 IT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핵심 기술을 인수하는데 따른 것이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는 2014년 각각 25건, 24건, 11건을 기록하며 자국 내에서 가장 많은 M&A를 추진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금융, 헬스케어, 미디어 등의 기업들에 대해 경쟁적으로 M&A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의 세부 산업별 M&A 거래건수>

(단위: 건수)

산업구분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Internet	13	6	5
Entertainment	1	2	-
Software	6	7	3
Computers	1	1	-
Electronics	1	-	-
Commercial Services	1	-	2
Diversified Finan Serv	-	2	-
Holding Companies-Divers	-	-	1
Investment Companies	-	1	-
Real Estate	1	-	-
Retail	-	3	-
Transportation	1	1	-
Leisure Time	-	1	-
전체 거래 건수	25	24	11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과 전망




중국의 IT 빅 3 -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 M&A를 통한 영역 경쟁 치열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흥미롭다. 현재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은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텐센트의 텐페이는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두 역시 온라인 제3자 결제서비스업체인 99Bill을 인수하며 모바일 결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모바일 메신저 분야에서도 알리바바가 모바일 메신저 1위인 텐센트의 위챗을 겨냥하여 모바일 메신저 '라이왕'을 출시하자 텐센트는 2억 1,470만 달러에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의 지분을 15% 인수하며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추격에 나섰다. 이외에도 텐센트는 전자상거래 부문 강화를 위해 58.com의 지분 20%를 7억 3,600만 달러에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ICT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텐센트는 JD.com에 투자를 단행하며 전자상거래 부문의 선두주자인 알리바바에 전면전을 예고했고, 알리바바 역시 텐센트의 위챗에 대항하여 모바일 메시징 부문에서 다양한 M&A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핵심 사업영역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시아, 미국 유수의 벤처기업들까지 넘보고 있다."며 이들의 거침없는 사업 확장에 주목했다. 이렇듯 산업을 넘나들며 중국의 빅3 IT 기업간의 영역싸움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서비스 분야 M&A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의 사업별 경쟁 현황>

사업영역	 Tencent 腾讯	 Alibaba Group 阿里巴巴集团	 Baidu 百度
E-Commerce	Jd.com, 58.com	Taobao	Baidu
Online Payment	Tenpay	Alipay	99Bill
GPS Application	Tencent Map	AutoNavi	Baidu Map
TAXI Application	Didi Dache	Kuaidi Dache	Uber Technologies
Mobile Messenger	We Chat	Snapchat	Baidu hi
Game	CJ Games	KT Play	Baidu Mobile G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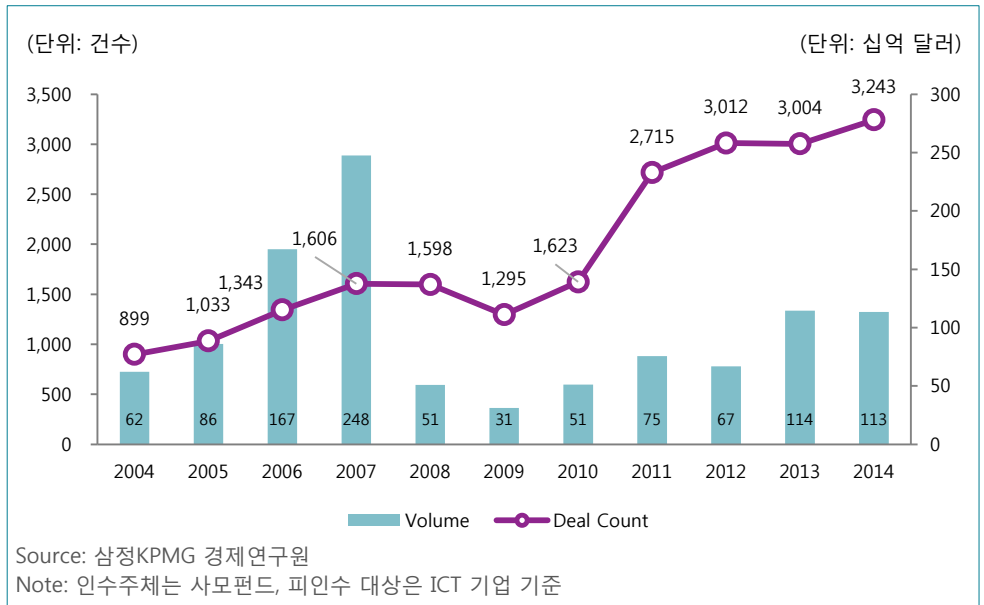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14년 진행한 M&A

사모펀드의 ICT 산업 투자 확대

사모펀드의 ICT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는 추세로, 2014년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3,243건을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최대거래건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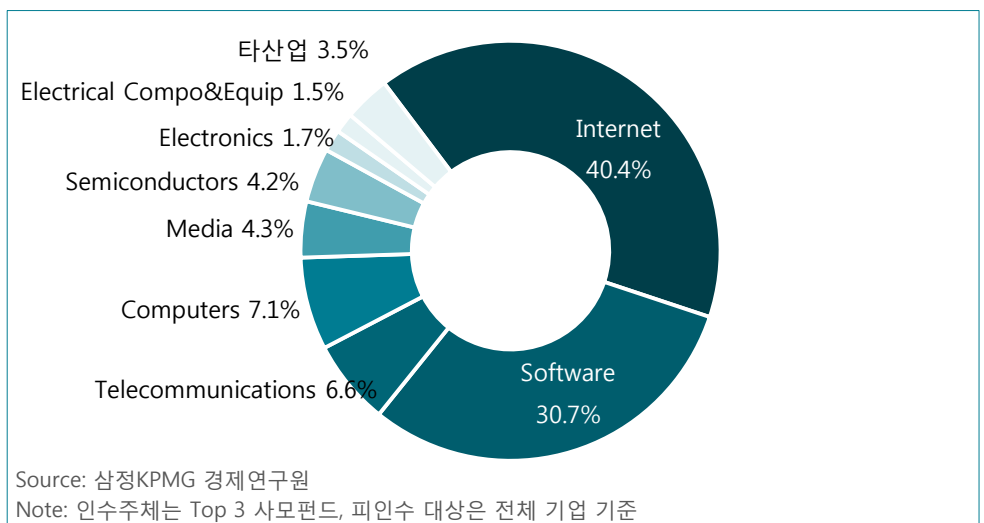
<2004~2014년 글로벌 사모펀드의 ICT 산업 M&A 추이>



사모펀드,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 활발

지난 10년간 사모펀드의 ICT 산업에 대한 M&A는 Sequoia Capital Operations, Accel partners, New Enterprise Associates 등의 사모펀드들이 높은 거래건수를 기록하며 투자를 주도했다. 상위 3개 사모펀드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세 기업 모두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점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이 40.4%, 소프트웨어가 30.7%를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고, 통신, 컴퓨터, 미디어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2004~2014년 Top 3 사모펀드의 인수대상 기업의 산업별 비중>



<2004~2014년 ICT 산업으로의 M&A를 가장 많이 진행한 사모펀드 Top 10>

(단위: 백만 달러, 건수)

No.	기업	거래 건수	거래 규모
1	Sequoia Capital Operations LLC	538	13,378
2	Accel Partners	522	11,114
3	New Enterprise Associates Inc.	445	9,055
4	500 Startups	377	642
5	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	357	13,563
6	Greylock Partners	343	8,867
7	LightSpeed Venture Partners	305	6,262
8	Draper Fisher Jurvetson	305	3,889
9	Bessemer Venture Partners	276	5,443
10	Index Ventures	274	5,609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인수주체는 사모펀드, 피인수 대상은 ICT 기업 기준

글로벌 1위로 꼽힌 Sequoia Capital Operations LLC은 애플, EA, 오라클 등 현재 글로벌 ICT 대기업으로 거듭난 기업들에 초창기부터 투자하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킨 사모펀드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유튜브, 드롭박스, 왓츠앱,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Accel Partners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솔루션기업인 Airwatch, 프레젠테이션 플랫폼업체인 프레지 등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 중이며, New Enterprise Associates는 최근 국내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Sitime에 투자를 단행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특히 2014년 거래규모 기준 상위 5개의 M&A는 전부 e-commerce로 전자상거래 분야로 투자가 집중됐다. 사모펀드들은 중국의 소셜커머스업체인 메이투안, 미국의 코스트코 구매대행 기업인 Instacart,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인 쿠팡 등 다양한 e-commerce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편, 2014년은 사모펀드들과 함께 Google Ventures, Intel Capital Corp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 두드러진 거래를 보이는 한 해였다. Google Ventures는 2009년 설립 이후 2014년에만 60건의 M&A를 진행하며 최대 투자를 기록했다. 핵심 사업분야인 인터넷/소프트웨어 분야의 콘텐츠 및 플랫폼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콘텐츠 및 플랫폼을 바탕으로 추가 트래픽을 확보하고 광고 이외의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향후 사물인터넷 기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킬 수 있는 진단용 알약, 알약형태의 센서 개발, 유전체학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014년 사모펀드의 상위 Top 5 M&A, E-Commerce에 집중



글로벌 ICT 기업의
벤처캐피탈 -
구글·인텔 가장 활발

<2014년 ICT 산업 M&A를 가장 많이 진행한 글로벌 사모펀드 Top 5>

(단위: 백만 달러, 건수)

No.	기업	거래 건수	거래 규모
1	Sequoia Capital Operations LLC	77	3,046
2	Accel Partners	76	3,159
3	Google Ventures	60	2,609
4	Intel Capital Corp	60	973
5	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	56	4,014
96	Samsung Venture Investment Corp	11	153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인수주체는 Top 3 사모펀드, 피인수 대상은 전체 기업 기준

인텔 산하 벤처캐피탈인 Intel Capital Corp는 2013~2014년 각각 55건, 60건을 기록하며 최근 투자를 확대 중이다. Intel Capital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특히 클라우드, 모바일 결제, 비디오 플랫폼, 데이터 스토리지, 빅데이터 분석 등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트렌드에 맞춰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기기, 가전, 로봇공학 기술 등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인 Samsung Venture Investment Corp는 1999년 설립된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2건 정도의 투자를 진행해 왔으나, 2012년부터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미디어 분야를 비롯해 헬스케어 분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시사점과 전망

2015년 M&A 시장 : The Boom is Back

2014년 ICT 산업의 M&A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의 M&A 거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지난 10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현금보유량 증가, 지속적인 글로벌화,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신사업 진출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앞다투어 M&A를 진행한 결과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ICT 산업
M&A의 핵심 키워드는
모바일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간(2015년 6월)한 “2015 M&A Outlook survey Report”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 사모펀드, 투자은행에 종사하는 총 735명의 M&A 전문가들은 2015년 M&A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2015년 ICT 산업 M&A의 핵심 키워드는 모바일 기술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모바일 분야에 대한 대응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이슈도 ICT 산업 M&A에서 주요 관심 분야다. 기업들은 M&A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적재산권 강화(50%), 신제품 개발(42%), 혁신 기술과 제품(41%), 시장 진입(41%), 플랫폼 경쟁력 강화(40%)를 지목하며, ICT 산업의 M&A시 특허와 기술 및 시장지배력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벤처투자 계열사인 Google Ventures까지 포함하여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28건의 투자와 5건의 M&A를 완료했다.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기업을 포함하여 항공우주산업 부문까지 투자하는 등 구글은 성장동력 찾기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를 중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ICT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M&A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ICT 산업의 M&A는 감소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빠른 ICT 산업을 리딩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국내 ICT 기업들 또한 M&A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보다 전략적 방안으로 M&A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

원장

T: 02-2112-0770

E: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조진희

책임연구원

T: 02-2112-7454

E: jinheecho@kr.kpmg.com

이희진

선임연구원

T: 02-2112-7438

E: hlee3@kr.kpmg.com

김주형

연구원

T: 02-2112-7769

E: jkim81@kr.kpmg.com

www.kr.kpmg.com

© 2015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